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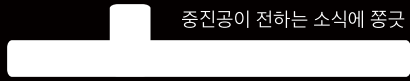


이메일 구독



카카오톡 채널

중진공
뉴스레터



중진공이 전하는 소식에 쫓겨



2023. 06. VOL21

SPECIAL THEME

지도 밖으로 가는 길





중진공이 전하는 소식에 풍긋

중진공 뉴스레터
2023.06 VOL.21

Special Theme

지도 밖으로 가는 길

- 03 DASH BOARD
 - 해외진출 및 수출 관련 지표
- 04 INSIGHT REPORT
- 06 전문가 칼럼
 - 중소기업의 든든한 해외진출 파트너, GBC
- 07 중소기업in
 - (주)센텍코리아
 - 독보적인 센서 기술로
 - 글로벌로 직진
- 09 중진공 지원사업
- 11 플러스 지원정보
- 13 해외진출 지름길, '해외전시회' 체크 포인트
- 14 중소기업에 유용한 글로벌 이커머스 빅4

New Wave

6월의 경제 포커스

- 15 Hot! 키워드
- 16 경제 이슈 읽기
- 17 Monthly 경제 동향
- 18 DASH BOARD
 - 금융경제지표 모니터링



Cover story

더 많은 중소벤처기업이
세계무대로 비상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해외진출 정보와 전략을 짰습니다.

DASHBO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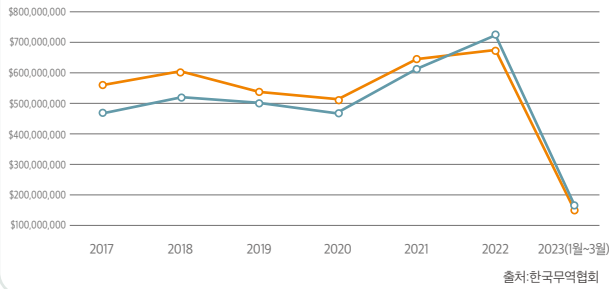
수출 관련 지표



국내 수출입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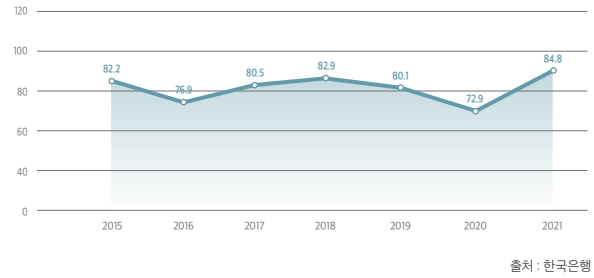
수출 — 수입 단위:천불

<수출입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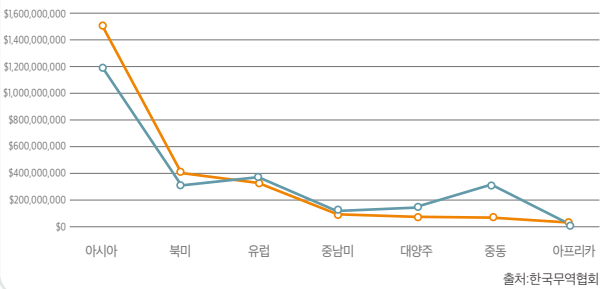
<GDP 대비 수출입 비율>



수출 — 수입 단위:천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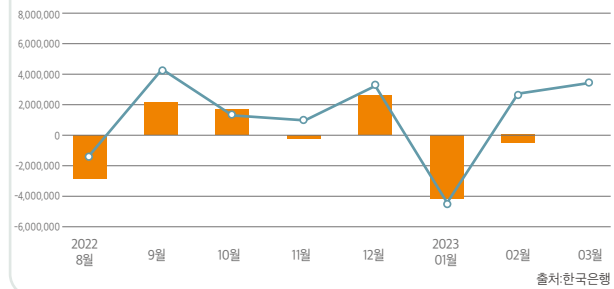
<대륙별 수출입 추이>

기준 2019.1~20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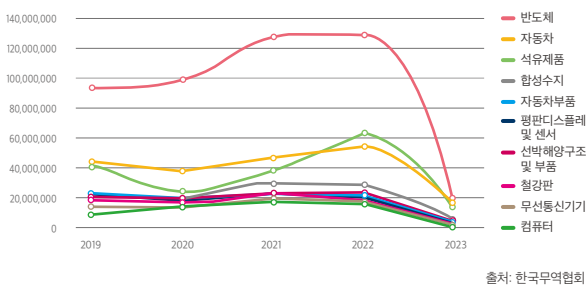
경상수지 — 무역수지 단위:천불

<경상수지 및 무역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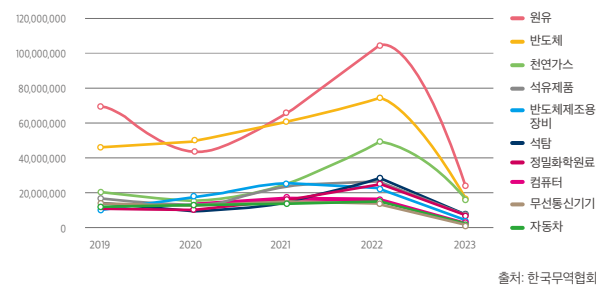
단위: 천불

<수출 10대 품목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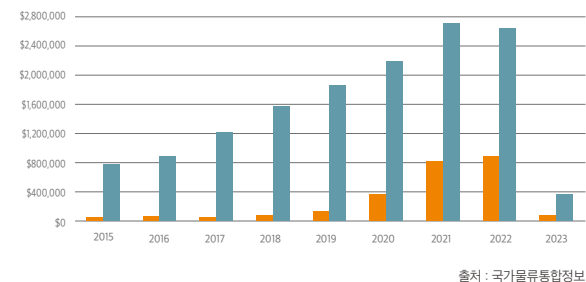
단위: 천불

<수입 10대 품목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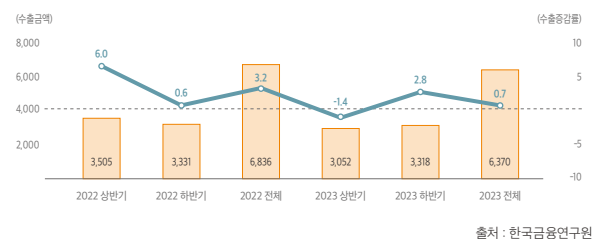
수출 — 수입 단위: 천불

<전자상거래 수출입 추이>



국내 수출전망

통관기준 수출액(억 달러) — 총수출증감률(%)



INSIGHT REPORT



최근 중소기업 해외진출 이슈

「중소벤처기업 수출 동향조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출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슈포커스)

☑ 중소기업 수출업체, 수출 전망 부정적

- 中企 수출업체 44.7%가 품목 전환 필요, 73.7%가 수출지역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
- '23년 1분기 수출 전망에 대해서는 中企 수출업체 절반 이상(50.7%)이 악화 응답, 호전 응답은 10.5% 불과하며, 악화 요인으로는 '글로벌 수요부진(수출대상국 경기둔화)', '가격경쟁력 하락', '자금 부족' 순으로 응답
- '23년 1분기 수출 체감 동향은 中企 수출업체 절반 이상이 모든 측면에서 악화 응답, 특히 '수출상품 제조원가'(61.8%)와 '물류·운임'(59.9%), '수출대상국 경기'(55.9%) 등의 측면에서 악화 체감 강도가 높음

- '23년 2분기 수출 전망에 대해서는 '수출상품 제조원가'(50.0%), '수출채산성'(47.4%), '수출단가(상품가격)'와 '물류·운임'(각 46.7%) 등 분야에서 악화될 것으로 예상

☑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정책 수요

- 中企 글로벌 공급망 대응 정책이 필요한 정부 지원 분야는 정책자금 외에, '국산화를 위한 R&D지원'(12.4%)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은 '제조현장 스마트화·디지털화'
- 中企 수출지원 정책 관련 애로사항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단편적 지원'이 28.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수출지원제도 정보 부족', '수출지

원사업 신청절차 복잡' 순

☑ 수출 여건 악화에 따라 지원 정책 강화 필요

- 中企의 수출지원 정책 수요를 반영해 해외 유망시장 발굴 및 판로지원, 제조현장 스마트화, 핵심원자재 대체조달처 및 국산화 R&D 지원, 물류·통관 지원 집중 필요
- 단편적인 위기 대응 차원에서 벗어나 단계별·지속적 수출지원체계 구축 필요
- 각 정부부처의 수출지원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 필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모니터링단 1,000개사 대상 2023.2.28.~3.9까지 설문조사

IPEF*의 논의 동향과 중소기업 시사점(출처: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포커스)

☑ 최근 주요 통상 이슈로 부각한 IPEF,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직결

- '22년 5월 23일에 출범한 신 경제통상 협정으로 최근 주요 통상 이슈들을 포괄하고 있어 규범 수립과 실효성 있는 협력관계 필요
- 특히 디지털경제, 공급망 등 핵심 통상 이슈는 중소 스타트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과 직결

☑ 중소기업과 통상 관련 IPEF 논의 동향

- (디지털 경제)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디지털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신기술의 책임감 있는

개발·사용 촉진 규정함에 따라 해외 디지털 거래장벽 해소에 대한 중소기업의 높은 수요와 참여국들의 디지털화 수준을 고려한 협상 전략 필요

- (공급망) 핵심 부문·품목 기준의 설정, 공급망 유연성을 위한 투자 촉진, 정보공유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에 따라 IPEF를 통해 한국의 생산공급망 역량 강화 전략 필요

☑ IPEF 통상 협정과 중소기업 시사점

- 전통산업과 핵심산업을 구분, 차별화된 전략

으로 경쟁력 제고와 네트워크 구축 추진

- 첨단산업 규제 우선 개선 등 디지털 통상 협상을 염두에 둔 정책 수립 필요
- 중소기업 관점의 '핵심 부문·품목' 정의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상 전략 필요
- IPEF를 시장·품목 다변화 및 해외진출 협력거점 마련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IPEF(Indian-Pacific Economic Framework)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약자. 미국 주도 아래 한국과 일본 등이 참여한 다자 경제협력체로 인도, 호주, 인도네시아 등 14개국 참여

5대 신성장 산업의 수출경쟁력 및 경제 기여 진단(출처:한국무역협회 연구보고서)

☑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차세대반도체·차세대 디스플레이·전기차·2차전지·바이오헬스 등 5대 신성장 산업이 수출 핵심 성장 동력으로 부상

- 전체 수출 중 5대 신성장 산업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1년 8.5%에 불과했으나 '22년 24%까지 빠르게 상승. ('11)8.5% → ('16)13.1% → ('19)19.7% → ('20)23% → ('22)24%

- 5대 신성장 산업 수출지역은 중국(32.4%)과 아세안(25.3%)에 집중, 전기차·바이오헬스·2차전지 중심으로 미국 수출 확대 추세

☑ 5대 신성장 산업 수출이 미치는 효과

- '22년 5대 신성장 산업 수출의 취업유발 인원 증가가 전체 취업자 증가의 32.3% 차지, 부가가치율도 총수출(61.5%)을 10.6%p 상회하는 72.1% 기록

☑ 지속적인 R&D 투자와 규제 개선을 통해 5대 신성장 산업 미래 수출 경쟁력 제고 필요

- 중장기적으로 국내 신성장 산업의 외연 확대를 위해서는 세계 수출시장 규모가 가장 큰 바이오헬스를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음. 현재 국내 바이오헬스 수출시장 점유율은 1% 초반대로 매우 낮은 수준

INSIGHT REPORT

최근 중소기업 해외진출 이슈



전자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현황과 협력 방안(출처:산업연구원)

☑ 한국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인도네시아 전자산업시장은 공급망 재편 추세와 높은 내수 규모로 인하여 중국 대체 국가로 부상

- 한국 전자산업은 마중 무역 갈등, 중국의 인건비 상승, 공급망 불안정화 등으로 중국 생산거점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으로 이전
- 한국과 인니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통해 경제협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우리 전자 기업의 대인투자 확대 기대

☑ '22년 기준 인니 진출 한국 제조업체는 1,000여 개, 전자부품·통신장비 분야는 70여 개

- 이 중 중소·중견기업 주요 생산 제품으로는 전력용 콘덴서(FILM), 적층형 콘덴서(MLCC), 리모컨, 셋톱박스, 라우터, 모뎀 등이 다수

☑ 인니는 GDP 규모 세계 16위, 인구 4위로 경제 중요성이 높음. '22년 대인니 수입은 전년 대비 46.7%, 수출은 19.5% 증가

- 인니내 국산부품 사용 요건(TKDN) 등의 정책이 있으나, 우리 기업의 공급망에 연계해 상호 동반성장의 협력 모델 창출 기회로 활용
- 인니 현지 기업의 공급망 참여 확대 및 통합적인 진출 전략과 해외직접투자 지원 필요

주목해야 할 수출 유망국 9(출처:코트라)

☑ 제조 강국으로 부상하는 나라_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 3국 모두 제조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현지 진출을 통한 기회 창출 필요. 단기적 수출 유망 제품은 자본재, 부품 등
- 한류에 관심이 높은 소비시장으로 특히 고소득층 대상 기능성 화장품, 식품, 미용기기 등에 대한 타겟 마케팅 필요

☑ 돈이 몰리는 자원부국_ 아랍에미리트, 호주, 캐나다

- 3개국 공통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 장비, 전기차, 충전소 등의 수요가 높음
- 아랍에미리트는 스마트팜, 호주와 캐나다는 IT 통신장비, 광산장비, 수소 경제 협력 유망 - 소비시장은 생활 편의형 앱 서비스, 건강식품, 반려동물용 프리미엄 제품 등이 유망

☑ 꾸준히 성장하는 나라_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

- 방글라데시와 우즈베키스탄은 섬유기계, 스마트팜, 산업전환을 위한 생산설비 등 유망
- 이스라엘은 FTA 체결로 자동차 부품, 냉장고, 에어컨 등 유망,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 정부조달 시장도 유망

☑ 정부·유관기관·기업이 협력하여 국가별·산업별 유망 분야에 적합한 사업화 지원 및 물류, 금융 등 수출 기본 인프라가 확보 노력 필요

대 중국 교역구조 변화와 시사점(출처:현대경제연구원)

☑ 최근 대 중국 무역수지 급격히 악화, 중국 리오프닝(재개) 효과에 대한 의문 제기 및 국내 산업 전반의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 고조

- 대 중국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13년 628억달러에서 '22년 12억달러로 급감, '23년에는 3월까지 누적 기준 79억달러 적자로 전환

☑ 대 중국 교역구조 변화와 교역 경쟁력 비교

- (기술 수준별) 대 중국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으며 저위기술 제조업의 적자 확대와 고위기술 제조업의 흑자 급감이 주요 원인. 한국의 대 중국 교역 경쟁력도 악화
- (상위 5대 수출입 상품별) 대 중국 5대 수출 상품 구성이 변화했으며 특정 상품 비중이 높아짐. '전기기계장치와 기기'의 비중 '90년 20.3%→'20년 33.6%로 상승. 수출품의 대 중국 교역 경쟁력도 악화

☑ 중국의 교역 경쟁력 상승, 적절한 대응 시급

- 대 중국 교역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대 중국 수출 전략 개선 필요
- 기존의 특정 산업 중심 대 중국 경쟁우위 구조 전환으로 비교 우위 확보
- 중국의 산업정책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를 국내 정책에 적절히 반영

전문가 칼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든든한 해외진출 파트너, GBC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해외진출은 쉬운 일이 아니다. 중소기업은 물적·인적 자원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 넘어야 할 산이 더욱 높다. 복합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은 해외진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꾸준히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해외진출 정책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1 중소기업 해외진출 애로 가중

필자는 현장 방문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는 것을 본다. 최근 첨단소재를 연구·생산하는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을 찾았다. 이곳은 해외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강소기업임에도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수출자금 애로를 겪고 있었다. 지역 수출기업도 마찬가지다. 김치와 레토르트식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전북 소재의 중소기업은 신제품의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해외 바이어 발굴이 절실하지만 어려운 점이 많으며 고충을 털어냈다.

2 수출 희망 중소기업, 중진공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주목

1998년부터 24년간 중소기업들의 해외 거점 역할을 수행한 중진공 수출인큐베이터(BI)가 최근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로 탈바꿈했다. 그동안 소수 입주기업의 해외 현지 사무공간을 제공하던 단편적 지원에서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금융·투자, 기술교류, 물류, 공적개발원조(ODA) 등 기능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전국 33개 지역본·지부를 찾아 중진공이 자체 보유한 국내기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선별한 타깃시장과 업종에 따라 최적의 해외 GBC를 매칭 받는다. 초기 현지 정착에 필요한 제품·디자인 현지화, 현지 법인계좌 개설부터 시장 정보제공과 바이어 발굴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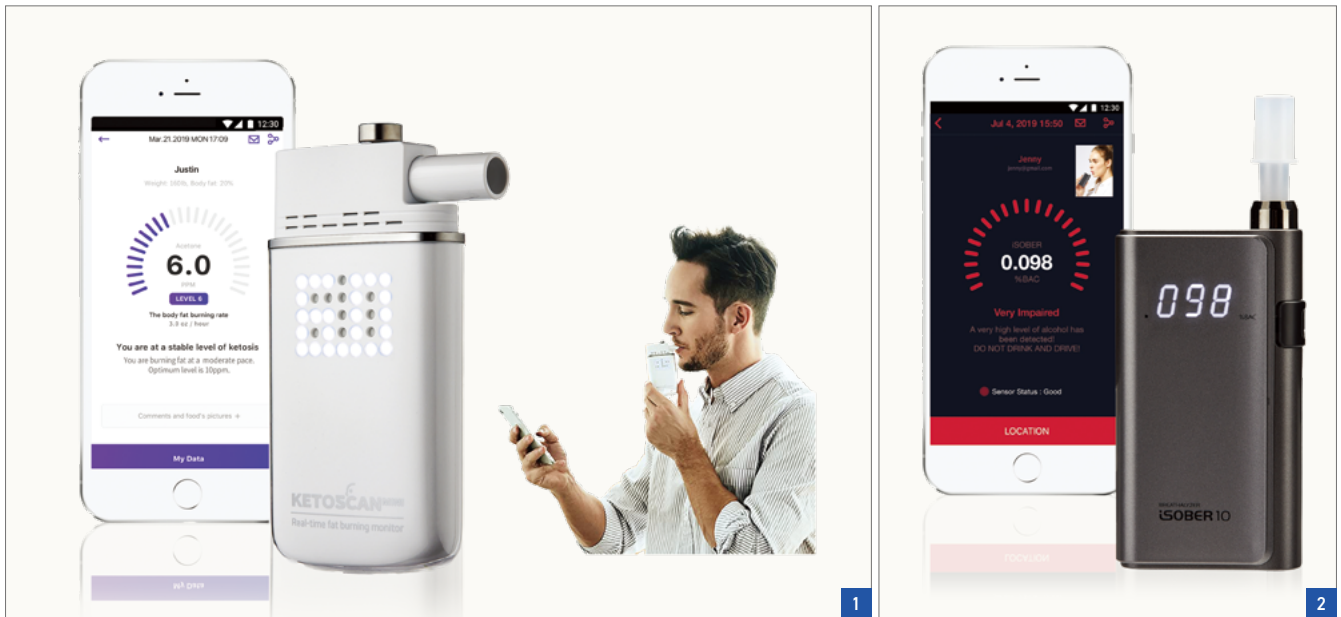
아울러 新 중동 붐에 따라 중동 수출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안에 사우디 리야드에도 GBC를 개소할 예정이다.

3 지역 중소기업과 해외시장을 이어주는 교두보 역할

수출 인프라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직접 현지 진출이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도 GBC를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됐다. GBC가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바이어의 매칭 요청, 협력 수요 등을 발굴해 지역 중소기업과 연결해주면 국내에서는 각종 수출지원 정책을 연계해 수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해외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 현지 네트워크를 폭넓게 확장해 보다 많은 지역 중소기업이 세계무대로 나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이를 토대로 GBC는 지역과 해외를 이어주는 교두보로서 맞춤형 해외진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바야흐로 대내외 격변의 시기다. 투입형 지원방식만으로는 부족하다. 중진공 GBC는 국내외를 아우르고, 정책수단을 다양하게 연계하는 일관지원체계를 보유했다. 중소기업이 GBC와 함께 해외로 비상하고 대한민국 수출의 주인공이 되는 수출강국의 시대가 하루 빨리 도래하기를 기대해본다.



(주)센텍코리아

독보적인 센서 기술로 글로벌로 직진

(주)센텍코리아(대표 유도준)는 정확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반도체식 가스 센서 기술을 보유하고 음주측정기, 가스 경보기,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등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알코올 전용 감지 센서를 이용한 음주측정기는 정확성, 내구성, 편의성이 뛰어나는데다 유려한 디자인으로 차별화에 성공해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 중이다.

최근 센텍코리아는 호흡 케톤 측정기인 케토스캔(KetoScan)으로 미국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기 시작했다. 케토스캔은 호흡으로 간단하게 자신의 체지방 감소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다이어트를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기다. 우수한 정확성과 편의성이 입소문을 타면서 미국 아마존을 중심으로 빠르게 매출이 늘고 있다.

현지법인을 중심으로 팬데믹에 빠르게 대응하며 미국에 안착

센텍코리아는 초창기부터 해외시장 진출에 공을 들였다. 국내 음주측정기 분야에서 1위에 오른 것을 시작으로 유럽에 진출해 품질과 시장 경쟁력을 확인했다. 이후 시선은 자연스럽게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으로 향했다.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거점인 LA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입주해 현지법인을 설립, 본격적인 공략에 나섰다.

미국 진출 초기에 센텍코리아는 음주측정기를 주력으로 오프라인 시장 중심의 마케팅을 전개했다. 제품 특성상 연방이나 주의 법안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고 대량 수요처가 경찰이나 물류기업인 점을 고려한 선택이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지고 오프라인 시장이 전면 차단되면서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때 센텍코리아는 온라인 시장진입에 주력하는 것으로 빠르게 출구전략을 폈다. 모든 자원을 아마존 중심의 온라인 시장에 집중하고, 주력 아이템도 기존의 음주측정기에서 케토스캔으로 바꾸었다. 다행히 이 같은 전략은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성장하던 케토 다이어트 붐과 맞물려 제대로 시너지를 내기 시작했다. 센텍코리아 오현석 미국 법인장은 해외진출에서 현지법인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지 눈높이에 맞춘 마케팅과
LA GBC의 다양한 지원으로
미국시장에 안착했습니다

12 미국시장에 진출한 센텍코리아의 호흡 케톤 측정기인 케토스캔(KetoScan)과 음주측정기 3·4 센텍코리아 오현석 미국 법인장은 중진공 LA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입주해 법인 설립, 온라인 비즈니스 전문가 연결 등을 지원받아 조기에 정착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해외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지 상황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현지 눈높이에 맞추어 마케팅과 영업을 진행하는 게 핵심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현지법인을 중심으로 시장 변화에 대처해 온라인 시장으로 전환한 덕분에 매출을 안정적으로 확보했습니다.”

LA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지원으로 위기 넘기며 매출 고공행진

센텍코리아가 이처럼 미국 시장에 안착한 데는 중진공 GBC도 단단히 한몫했다. LA GBC에 입주해 법인 설립, 비자 관련 정보, 전문가 연결 등을 지원받아 조기에 정착했으며, 온라인 매체 기사 홍보 등의 다양한 마케팅 지원으로 미국 시장에서 자사 제품 및 브랜드 인지도가 낮다는 핸디캡을 시나브로 극복했다. 오 법인장은 특히 현지에서 뜻밖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 GBC의 지원이 더 빛을 발했다고 말했다.

“케토스캔 매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던 2022년 하반기에, 아마존으로부터 케토스캔의 UL 테스트 결과자료를 일주일 내로 제출하라고 요청받게 됐습니다. 그전까지 CE, FCC 인증 자료로 대응했는데, 소비자로부터 클레임을 받고 갑자기 UL 인증을 제출하라고 하니 막막했죠. 다행히 LA GBC에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 해당 분야 전문가를 연결해 주어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해결했습니다.”

오 법인장은 자칫 수개월간 계정을 폐쇄당할 수 있는 위기를 무사히 넘긴 것에 고마움을 전했다. 현재 센텍코리아는 아마존을 중심으로 소비자를 더 늘리는 동시에, 오프라인 시장 진출을 추진하며 미국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알코올을 비롯해 다양한 물질을 감지하고 더 확장한 분야에 센서를 적용하는 센텍코리아의 독보적인 기술이 세계 곳곳으로 직진하고 있다.

TIP

(주)센텍코리아
오현석 미국 법인장이 전하는

해외진출 노하우

- 01 ——— 현지 시장 변화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 02 ——— 현지 눈높이에 맞춘 마케팅과 영업 활동 전개하기!
- 03 ——— GBC 등 정부 지원 사업을 심분 활용해 시행착오 줄이기!



중진공 지원사업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



중소기업 해외진출 치트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아시나요?

해외진출, 이런 고민이 있다면?

- ✓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공유형 해외 현지 사무공간이 있었으면...
- ✓ 현지 은행계좌 개설은 어떻게 하는 거지?
- ✓ 현지에서 투자유치를 하고 싶은데...
- ✓ 현지에 알맞은 지원 프로그램은 있을까?
- ✓ 현지에 오긴 했지만 법인설립에 현지 마케팅까지 막막하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소개합니다!

-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특성화·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개방형 플랫폼이에요.

어디 어디에 있는데요?

- 교역 활동이 활발한 12개국 20개소에 마련했습니다.
- 중국(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충칭, 선전), 미국(뉴욕, LA, 워싱턴 DC, 시카고), 베트남(호치민, 하노이), 일본(도쿄), 멕시코(멕시코시티), 칠레(산티아고), 독일(프랑크푸르트), 러시아(모스크바), UAE(두바이), 카자흐스탄(알마티), 태국(방콕), 인도(뉴델리)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 개방형 공유 사무공간 지원 : 공유형 입주공간과 공유오피스로 구분되어 있어 독립 사무실은 물론 단기 해외출장 등 기업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어요.
- 특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 디자인 현지화 및 해외인증 등을 통한 제품현지화에서부터 해외·국내 지자체간 협력, 현지 마케팅까지 현지 GBC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도 지원한답니다.

- 현지 진출에 필요한 금융·투자지원도 함께 : 현지화 과정에 필요한 현지 금융기관의 법인계좌 개설과 금융 컨설팅을 지원하고, 중진공이 보유한 기업 DB를 통해 유망기업을 발굴·매칭하는 등 VC 및 현지 진출 국내 투자자 대상 투자 유치도 지원해요.
- 현지 네트워크 구축 지원도 탄탄하게 : 한인·동포 협력 단체기관을 비롯해 현지에 진출한 대기업과 민간전문기관, 현지 정부·공공기관 등과 폭넓은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다양한 협력 활동을 연계 지원해요.

놓치지 마세요, '글로벌비즈니스지원단'도 있어요

- 12개국 20개소 GBC별로 '글로벌비즈니스지원단'을 운영해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무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자문 서비스 내용 : 현지 시장정보, 법률, 세무(회계), 노무, 마케팅
- 언제, 어떻게 : '23년 시범운영 후 확대할 예정'이에요. 현지 진출 기업은 오프라인으로, 국내 소재 기업은 화상상담으로 진행해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12개국 20개소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개방형 공유 사무공간 + 현지화
+ 금융·투자 + 기술교류 + 물류

중진공 지원사업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



지금 신청하세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이용기업 모집

지원 대상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유망 중소벤처기업

지원 규모 • 12개국 20개소 260개실(독립실), 217석(공유오피스)

구 분	북미				아시아					
	시카고	L A	워싱턴	뉴 욕	도쿄	호치민	하노이	방콕	뉴델리	알마티
독립실	16	20	10	9	18	15	15	10	14	7
공유오피스	5	12	8	32	8	12	6	9	45	6

구 분	남미		유럽		중동	중국				
	멕시코시티	산티아고	프랑크푸르트	모스크바	두바이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충칭	선전
독립실	9	8	15	8	15	17	14	22	8	10
공유오피스	2	6	8	8	18	8	-	14	4	6

지원 내용

- **현지화** : 현지 초기 정착 지원,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법인설립, 법률, 회계 서비스 지원
- **금융** : 현지 금융기관의 법인계좌 개설 지원, 금융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금융 컨설팅 지원
- **투자** : VC 및 현지 진출 국내 투자사 대상 IR 피칭 및 투자유치 지원
- **기술교류** : 중소기업 온라인 글로벌 기술교류 플랫폼(G-TEP)을 활용한 상시 기술교류 지원
- **물류** :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공동물류 지원

신청 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신청(kosmes.or.kr)

공유오피스 이용 신청

-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예약시스템인 G-SPACE에서 온라인 신청(gbc.kosmes.or.kr)

문의

- 중진공 미주유럽사업팀 : 055-751-9674
- 중진공 아시아사업팀 : 055-751-9677

신청 기간

- 상시 모집



플러스 지원정보



정부부처 지원정책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국내 최초 도입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실증, 인증, 허가, 사업화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인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실증거점을 조성하여 제품개발과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며, 글로벌 혁신 특구 입주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스케일업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도 가동
- '23년 2~3개 시범 조성 후 '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 조성

#중소벤처기업부 #첨단기술해외진출 #해외실증거점



디지털 기초체력 강화와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

- 디지털 경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튼튼한 SW 기반 조성과 SW 분야의 해외진출을 위해 3대 전략 7대 과제 발표
- 단계별 스케일업 프로젝트, 전담형 수출 프로젝트 등을 통해 유망 SW기업의 고성장과 해외진출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
- 글로벌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24년부터 SaaS(서비스형 SW)의 글로벌 마켓플레이스 진입 지원, '한-아세안 디지털 스쿨' 등 해외 현지시장을 고려한 지원체계 추진 예정

#기획재정부 #SW해외진출 #SW글로벌화



K-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 K-의료기기의 우수한 기술을 신속하게 제품화하고, 유망 K-의료기기의 해외진출을 위해 밀착 지원할 계획
- K-의료기기 수출 도약을 위해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해외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제품군과 품목을 발굴·선정해 제품화부터 해외진출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메가프로젝트(MEGA, MEmedical product Go Abroad) 추진
- GPS(G 글로벌 리더 국가 도약, P 국제 파트너십 확대, S 수출 지원 서포터) 전략으로 우수 국산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K-의료기기해외진출 #K-의료기기사출도약



국내 OTT 해외진출 지원 본격화

-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OTT 해외진출 기반조성 사업' 본격 추진
- 국내의 뛰어난 OTT 관련 기업들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 투자유치를 위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국제교류(10월 예정)' 개최
- OTT 기업의 초기 해외진출을 위한 시장정보제공과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OTT 해외거점 연계지원사업' 추진, 해외정보기술지원센터 등의 현지거점을 활용 현지 정착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TT해외진출 #K-콘텐츠

중소기업 지원 사업



빅바이어 아웃소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구매력있는 빅바이어와 온라인 상담, 바이어 방한 및 대면상담 지원 등 소수 심층 매칭 지원

- 신청기간 : 6월 6일까지
- 신청대상 : 화장품/식품/생활용품 등 소비재 중소기업
- 신청방법 : 이메일(ftw10@kosmes.or.kr, ekaterina.kosmes@gmail.com) 신청
- 문의 : 중진공 모스크바GBC(+7-903-501-5257)

#경상북도 #중진공 #모스크바GBC #유라시아수출



2023년 K-소비재 미국 대형유통망 진출 지원사업 모집 공고

미국 대형 유통망 진출을 위해 기업별 컨설팅 및 수출전략 지원, 빅바이어 수출상담회, 디지털 마케팅 등 지원

- 신청기간 : 6월 4일까지
- 신청대상 : 미국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K-소비재 분야 제조 또는 유통 중소기업
- 신청방법 : 이메일(swbaek@kosmes.or.kr) 신청
- 문의 : 중진공 뉴욕GBC(+1-201-944-3911)

#중진공 #뉴욕GBC #소비재 #미국유통망

플러스 지원정보



중소기업 지원 사업



2023년 K-스타트업센터(KSC) 참여기업 모집

해외진출 희망 유망 스타트업에 입주공간, 사업화, 바이어발굴, 투자유치 기회 제공 등 현지화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모집
- ☑ 신청대상 : 국내외 투자유치 실적이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해당국가 또는 인접국가에 수출실적이 있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단, 신산업창업분야 중소기업은 10년 이내)
- ☑ 신청방법 : 중진공 홈페이지(kosmes.or.kr) 온라인 신청
- ☑ 문의 : 시애틀-파리(055-751-9676), 싱가포르-하노이(9675)

#중진공 #현지화지원 #KSC



온라인수출플랫폼 온라인 구매오퍼 사후관리

중소기업의 온라인 B2B 거래 활성화를 위해 무역전문가가 중소기업-해외바이어 간 수출협상부터 통관 등 무역업무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모집
- ☑ 신청대상 : 온라인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 신청방법 :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 온라인 신청
- ☑ 문의 : 중진공 온라인수출처(055-751-9744, 9797)

#중진공 #온라인수출



해외기술교류사업

각국 정부와 협력해 한국의 기술을 이전받기 원하는 현지 기업과, 기술이전 등을 통해 해외진출을 원하는 국내 기업을 발굴·매칭

- ☑ 신청기간 : 상시모집
- ☑ 신청대상 : 기술수출을 희망하며 자체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 ☑ 신청방법 : 해외기술교류 플랫폼(g-tep.or.kr) 온라인 신청
- ☑ 문의 : 중진공 글로벌사업처(055-751-9678)

#중진공 #해외기술교류



특송사 물류 할인 서비스

중소기업의 물류부담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FedEx·DHL·UPS·CJ 대한통운과 협약을 통해 물류 할인 서비스와 물류 컨설팅 제공

- ☑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 ☑ 신청대상 : 고비즈코리아 회원
- ☑ 신청방법 :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 온라인 신청
- ☑ 문의 : 중진공 고비즈코리아(1588-6234)

#중진공 #고비즈코리아



2023년 광주광역시 해외세일즈 출장 및 바이어 초청 사업 참가기업 모집

중진공과 광주광역시가 협력, 해외시장개척단 등을 통해 발굴한 바이어와 계약 또는 MOU체결 시 해외출장 경비 지원

- ☑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 ☑ 신청대상 : 광주시 주관 해외시장개척단, 전시박람회·수출상담회, 온라인수출마케팅사업 참가 후 5년 이내 수출계약 등의 목적으로 동일 바이어를 방문·초청·계약을 체결하는 기업
- ☑ 신청방법 : 중진공 이메일 신청(aypark@kosmes.or.kr)
- ☑ 문의 : 중진공 글로벌지역혁신팀(062-369-3051)

#중진공 #해외세일즈



D.N.A. 융합 제품·서비스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수시)

AI 등 미래 디지털 기술 보유 국내 기업의 현지 정착과 후속 사업 발굴에 적합한 조인트벤처(JV)형 해외진출 지원

- ☑ 신청기간 : 7월 31일까지
- ☑ 신청대상 : 해외 현지 JV 추진계획이 있거나, JV 완료 후 사업 운영 중인 미래 디지털 기술 분야 제품·서비스 보유 기업
- ☑ 신청방법 : 본투글로벌센터(born2global.com) 온라인 신청
- ☑ 문의 : 본투글로벌센터 협력사업개발팀(031-8039-673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외진출지원



해외진출 지름길, '해외전시회' 체크 포인트



찰떡궁합 전시회 고르기

- ☑ 무작정 유명하거나 인기 있는 전시회를 선택하기보다는 규모가 작더라도 자사제품의 특성과 맞는 전시회에 참가하라.
- ☑ 신규 바이어 발굴, 브랜드 홍보 등 전시회 참가 목표를 명확하게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전시회를 선택하라.
- ☑ 타깃 시장이 특정 국가라면 여러 나라 바이어들이 방문하는 전시회보다 해당 국가 중심의 지역 전시회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 ☑ 아무리 제품이 우수해도 해외전시회는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유사한 성격의 전시회를 복수로 선택해 지속적으로 꾸준히 참가하라.

전시회 전후 마케팅도 성공 관건

- ☑ 전시회 3~4개월 전부터 잠재 바이어 및 타깃 바이어에게 전시회 초청 및 전시회 관련 해당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라.
- ☑ 전시회가 개최되는 현지 국가 내 기존 바이어가 있다면, 사전 논의를 통해 전시기간에 공동 마케팅 이벤트를 펼쳐라.
- ☑ 사전에 현지에 진출해 있는 정부지원기관이나 유관기관을 통해 바이어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고, 이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거나 전시기간 내 미팅 약속을 잡아라.
- ☑ 전시회가 끝나면 사후관리를 꼼꼼하게 진행하라. 상담 시 약속한 샘플이나 추가 자료 발송, 질문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계약상담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귀국 즉시 계약조건, 계약서 작성, 신용조치 등의 계약절차를 진행하라.
- ☑ 전시회를 통해 확보한 바이어 DB는 계약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향후 참가 예정인 전시회, 신제품 출시, 회사 정보 등을 수시로 알려라.

알송달송? 개별참가 vs 단체참가

- ☑ 개별참가란 기업이 직접 해외전시회 참가 신청부터 물품 운송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 전시회이다. 개별참가는 참가서류 작성→참가비용 입금→부스설치 협의→전시품목 현지 발송 등의 과정을 기업이 직접 진행해야 하며, 단체관 대비 운송비 부담이 높다. 반면 부스 설치에 제한이 없고, 한국 기업이 아닌 현지 기업 사이에 부스가 배정된다는 게 장점이다.
- ☑ 단체참가란 한국무역협회, 지자체 등에서 구성한 '단체관(한국관)'을 통해 참가하는 전시회이다. 단체참가는 전시회 참가비용과 운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시대행사가 있어 신청 절차가 쉽고, 간단하다는 게 큰 장점이다. 반면 단점으로는 부스규격과 모양, 위치 등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없으며, 함께 참가하는 한국 기업과 부스가 나란히 지정된다.

바이어 사로잡는 부스 디자인

- ☑ 단순한 정보 전달 중심의 일차원적인 디자인을 넘어 VR, AR, MR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전략이 필요하다.
- ☑ 지나치게 복잡하고 기교를 가미한 부스 디자인은 제품을 보여주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단순하고 깔끔하게 디자인하라.
- ☑ 제품 특성 상 바이어 상담이 중요한 경우, 부스 면적이 좁더라도 전시코너와 미팅코너를 적절하게 분리하는 것이 좋다.
- ☑ 제품이 작은 경우, 부채꼴 형태로 쇼케이스를 만드는 등 다양한 디스플레이 기법을 활용해 주목을 끌어야 한다.
- ☑ 컬러와 조명을 최대한 활용하라. 컬러는 다양한 색을 사용하기보다 단색이나 기업 CI를 활용해 일관성을 유지하며, 제품에 하이라이트 조명 효과를 줘 시선이 집중될 수 있도록 유도하라.

중소기업 해외진출에 유용한 글로벌 이커머스 Big 4




www.amazon.com

amazon.com

미국 / 1994년 설립 / www.amazon.com

- 세계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 전 세계 20개국에서 마켓플레이스 운영
-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 약 40%
- 북미 마켓(미국, 캐나다, 멕시코) 기준 월 방문객 1억5,000만명 이상
- 입점 마켓 : 북미, 일본, 유럽, 인도, 싱가포르, 호주, B2B
-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FBA) 물류 서비스 지원
- 한국 셀링 파트너 대상 서포트 서비스 지원
- 국내 정부·유관기관과 협업 다양한 판매지원 서비스 실시




korean.alibaba.com

Alibaba.com

중국 / 1999년 설립 / korean.alibaba.com

- 세계 B2B 이커머스 플랫폼 1위
- 상품 소싱 바이어 수 약 4,000만개사
- 한 번 입점으로 약 200개국 판매 가능
- 16개국 언어로 상품 등록, 동영상 번역, 채팅 지원
- 한국 셀러 대상 본사 서비스팀 지원,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제공
- 뷰티&퍼스널케어, 헬스케어&의료, 식음료 등의 한국 제품 인기
- 국내 정부·유관기관과 협력 판매·교육 지원사업 실시
- 유료회원에 한해 소싱 요청이 가능한 RFQ(견적의뢰서) 제도 운영




www.shopee.kr

Shopee

싱가포르 / 2015년 설립 / www.shopee.kr

- 동남아시아 이커머스 플랫폼 1위
- 입점 마켓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대만, 태국,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9개
- 첫 입점은 싱가포르만 가능, '한국 셀러센터 8개국 입점 패키지' 서비스 운영
-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입점, 타 플랫폼 대비 입점절차 간단
- 쇼피 물류 서비스(SLS) 지원
- 최소 상품 등록 기준 5개, 무료 번역 및 고객 응대 지원
- 입점 후 90일간 수수료 면제 혜택
- 입점 후 2개월 동안 전담 매니저가 밀착 지원하는 인큐베이션 과정 운영




www.rakuten.co.jp

Rakuten

일본 / 1997년 설립 / www.rakuten.co.jp

- 일본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일본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28%
- 14억 명의 유저 베이스 보유, 1일 유통액 153억엔
- 스토어 중심으로 판매되는 구조의 플랫폼
- 입점 스토어 약 5만7,000개('22년 기준)
- 제품 특성에 맞게 자유로운 상품페이지 제작 가능
- 스토어별 한국어가 가능한 담당 컨설턴트를 배정해 서포트
- 1년 이상의 법인 사업체만 입점 가능
- 입점 신청에서 스토어 오픈까지 약1.5개월 소요



Hot! 키워드



EU 수출기업은 주목해주세요~

탄소국경조정제도

- EU가 탄소중립을 위해 10월부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실시, 철강과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알루미늄 등 6개 품목 우선 적용
- 해당 품목을 EU에 수출할 경우 제조과정에서 EU 기준을 초과하는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함
- 오는 10월부터 2025년까지는 전환기간으로 의무적으로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며, 2026년부터는 CBAM 인증서 구매도 의무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포기못해!

피지컬이 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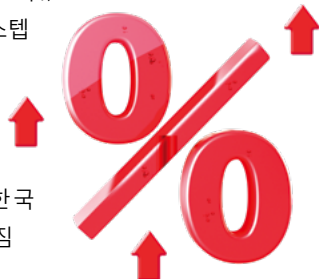
- 코로나19의 엔데믹 전환 이후 억눌린 소비자들의 오프라인 경험 수요가 폭발하며, 유통 산업 중심으로 피지컬 마케팅 붐
- '피지컬'이란 물리적 공간(Physical)과 디지털(Digital)의 합성어로 오프라인 매장과 디지털 서비스 간의 결합을 의미하며, 오프라인의 '체험'과 디지털의 '편리함'을 모두 반영
- 키오스크를 활용한 결제방식, QR코드를 이용해 결제하거나 상품 정보를 확인하는 것,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상품을 매장에서 수령·수선하는 방식, 쇼핑 카트에 물건을 넣을 때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 등이 대표적인 예



금리 인상 이번이 정말 마지막?

라스트스텝

- 최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또 0.25% 올리자 '라스트스텝'(Last Step)이라는 용어가 등장해 주목, 그간 연준이 금리를 10회 연속 올렸는데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예측에서 대두
- 금리 인상을 보폭에 비교해 한 번에 0.25%p 올리는 것을 베이비스텝(Baby Step), 0.5%p 인상은 빅스텝(Big Step), 0.75%p 인상은 자이언트스텝(Giant Step), 1.0%p 인상은 울트라스텝(Ultra Step)이라고 칭함
- 연준의 이번 금리 인상으로 5월 기준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 한국(3.50%)과 1.75%p로 벌어짐



아마존의 배신, 너 때문에 자주 올라

역아마존 효과

- 최근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되면서 '역아마존 효과'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 시작
- 기존에는 아마존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중간자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생산자를 직접 연결하는 인터넷 상거래 플랫폼을 빠르게 발전시킨 덕분에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의미에서 '아마존 효과'라는 용어가 등장
- 하지만 최근 아마존이 독점적인 위치를 갖게 되자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 국내 음식 배달 플랫폼이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자 수수료를 인상한 것도 역아마존 효과의 예로 주목

amazon.com



한국개발연구원

한국 경제 성장을 전망 하향 조정 1.8%에서 1.5%로

✓ 국내경제는 '23년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위축되며 1.5% 성장한 후, '24년에 대외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로 2.3%로 전망

- '23년 상반기에는 수출 부진으로 0.9% 성장, 하반기에는 중국경제 회복과 반도체 부진 완화로 2.1% 성장 예측
- 설비투자는 대외 여건 악화로 '23년에 1.1% 증가하나, '24년에는 1.8%로 성장

폭 확대 전망

- 수출은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해 상품수출 중심으로 위축된 후 '24년에 완만하게 회복될 전망

✓ 경상수지는 '23년에 흑자폭(164억달러)이 크게 축소된 후, '24년에는 대외수요 회복과 교역조건 개선으로 흑자폭(383억달러) 확대 전망

- 소비자물가는 '23년 하반기에 상승폭이

축소된 후, '24년에도 상승세 둔화가 이어질 전망

-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 생산 증가로 27만명 증가, '24년에도 양호한 증가세 전망

✓ 반도체 수요 회복 시기, 중국경제 회복 정도, 라우악화로 인한 곡물·에너지 가격 급등, 금리인상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꼽힘

국제금융센터

주요 투자은행의 세계경제 및 주요국 성장률 전망(2023년 4월 말 기준)

✓ 세계(-): 미국의 소비 수요와 중국의 경제 재개방 등으로 1분기는 양호한 성장세이나 누적된 통화긴축의 여파, 물가 하방 경직성, 미중 분쟁 등으로 하반기 불확실성 가중

- 미국(-): 견조한 소비(3.7%)에도 재고 감소, 투자 부진 등으로 성장세 둔화. 하반기 완만한 침체 또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점증. 물가압력과 신용위축 우려로 향후 통화정책 방향 주목

*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란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신조어로 경제불황 속에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

- 유로존(+0.2%p 1): 수출 및 산업생산 개선 등으로 1분기 경기침체 모면, 하반기는 통화긴축 여파 및 신용위축 등으로 성장 정체 전망
- 중국(+0.3%p 1): 소비 반등으로 1분기

성장률이 예상(3.8%)을 대폭 상회, 부동산 시장도 완만한 회복세이나 예상 대비 부진한 민간투자가 우려 요인

- 일본(-): 견조한 소비 및 생산 등이 완만한 성장세를 견인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물가압력으로 6~7월 무렵 YCC* 정책 완화 예측

* YCC(수익률곡선제어, Yield Curve Control)란 특정 만기일의 국제 금리의 목표치를 정하고 그 수준을 유지하도록 국채를 매입 또는 매도하는 통화정책

한국금융연구원

경상수지 현황 점검 및 평가

✓ 한국 경상수지는 10여 년간 상당 규모의 흑자 기조를 지속했으나 '22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악화, '23년에는 대규모 적자로 부진

- '23년 1~2월간 47억달러의 적자 기록
- 이는 '22년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상품수지 적자에 기인함. '22년 3분기 상품수지 적자는 39억달러, 4분기 24억달러, '23년 1~2월 86억달러

✓ 올 4월에도 경상수지가 이례적인 적자폭을 기록하면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개연성이 있어 주의 필요

- '21년 3분기에 정점을 기록한 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물량 추이와는 반대로 수입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세
- 수입물량이 향후에도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경우 경상수지 악화가 지속되면서 거

시경제 취약성이 누적될 것으로 예상

✓ 수출을 촉진하는 동시에 수입 수요가 원활하게 조정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대응 필요

- 수출 품목 다변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무역금융과 해외 네트워크 측면에서 뒷받침되어야 함

Monthly 경제 동향



한국 은행

4월 금융시장 동향

국고채금리는 미국 지역은행 불안 완화 등 상승 요인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의 도비시(dovish, 비둘기파, 온건파)한 평가 등 하락 요인이 혼재하며 3%대 초중반의 좁은 범위에서 등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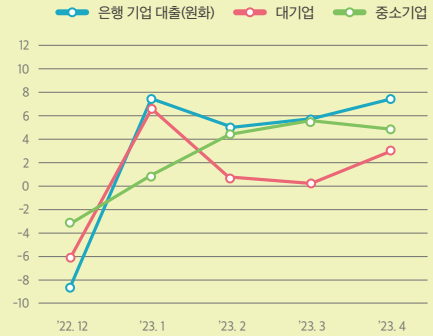
- 주요 단기시장금리는 기준금리 대비 스프레드(가산금리) 확대에 따른 부담과 월말 단기유동성 축소 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

코스피는 중국 경제지표 호조 기대, 반도체·2차전지 업황 개선 기대 등으로 상승하였으나 미국 지역은행 불안 요소가 재부각됨에 따라 반락

- 4월 은행 가계대출(23.3월 -0.7조원 → 4월 +2.3조원)은 증가세로 전환되고, 기업대출(+5.9조원 → +7.5조원)은 증가폭 확대

단위 : 조원

<기업 대출 추이>



* 기간 중 잔액 증감, 예금은행(은행신탁 포함) 기준

국제 금융센터

4월 국제금융시장 동향

(주식) 주요국 주가는 은행 시스템 위기 우려가 예상보다 제한된 반면 통화긴축 완화 기대는 커지면서 성장주 중심으로 상승(2월 말 대비 미국 S&P +3.0%, 유럽 -0.9%, 신흥국 +1.7%)

- 연준의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시장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됐으나 향후 인플레이 수준 및 통화정책 경로가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채권) 미국 장기금리(10년)는 은행권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고용 및 PMI* 부진 등 경제지표 둔화 등으로 큰 폭 하락(-61p, 3.31%)

- 향후 경기둔화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장기 금리 하락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되나, 인플레이션

속도 둔화 여부 등이 주요 변수

*PMI(Purchasing Managers' Index, 구매관리자지수)
란 기업의 신규 주문·생산·출하·재고·고용 등의 지수로 일
반적으로 PMI가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50 미만이면 수
축을 의미

(외환) 미국 달러화는 은행 사태 이후 금리 인상 기대가 후퇴하며 통화 대비 약세(-2.7%). 엔화는 은행권 우려와 안전자산 선호로 강세(+3.8%)

- 달러화는 글로벌 은행권 불안 여진, 인플레이 압력 약화 가능성 등으로 당분간 약세 전망

한국개발 연구원

5월 경제동향

국내 경제는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내수 부진 완화에 힘입어 급격한 하강세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

- 수출은 반도체 중심으로 큰 폭의 감소세 지속
- 반면 내수는 설비투자 증가세가 제한적인 상황이나, 민간 소비 중심으로 부진 완화

고용시장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양호한 모습

- 제조업과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감소세 지속, 서비스업은 높은 증가세를 보임
-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기 부진으로 남성은 낮은 증가세, 서비스업의 개선으로 여성은 높은 증가세

금융시장은 해외 은행권 부실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부채상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연체율 상승

- 국고채 금리(3년)의 변동폭이 축소되고 종합주가 지수가 소폭 상승한 가운데 환율은 상승
- 고금리 기조로 중소기업 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23년 1월 0.39%→'23년 2월 0.47%)

DASHBO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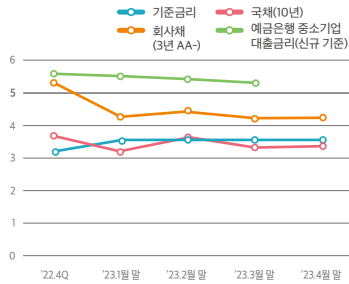
금융·실물경제지표 모니터링



✓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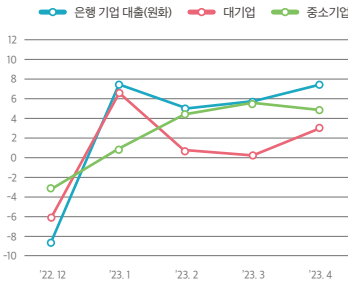
단위 : %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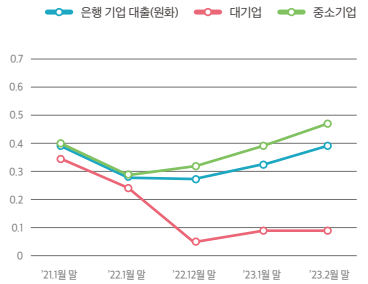
단위 : 조원

<기업 대출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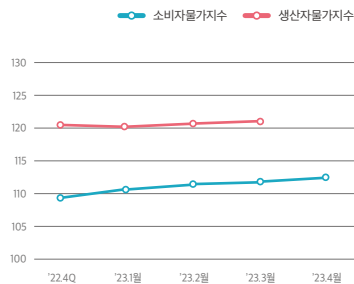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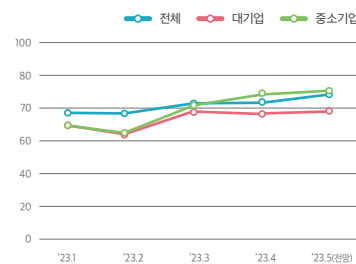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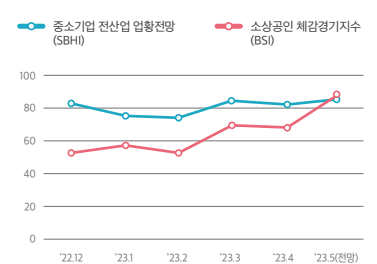
<기업 대출 연체율 추이>



* 기간 중 전액 증감, 예금은행(은행신탁 포함) 기준

✓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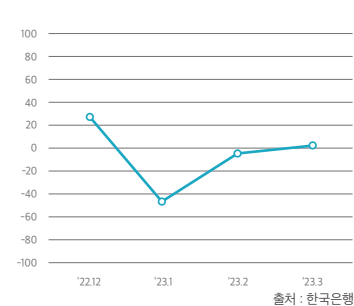
<소비자·생산자물가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
(전산업 업황실적 기준)<중소기업·소상공인 업황전망
경기지수>[SBH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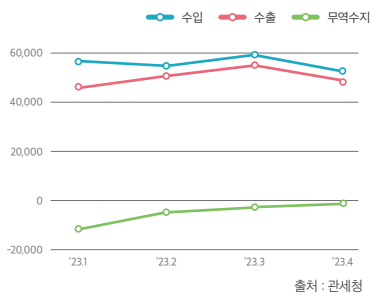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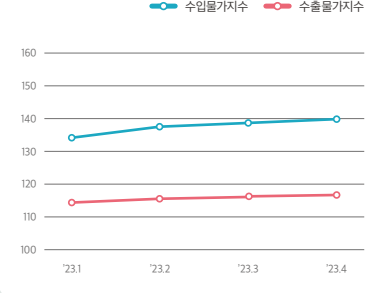
✓ 수출

단위 : 억달러

<경상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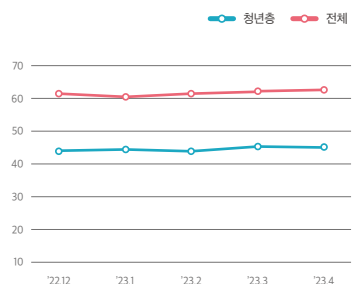
단위 : 백만불

<수출입실적 및 무역수지>
(통관기준 잠정치)<수출입물가지수>
(원화기준)

✓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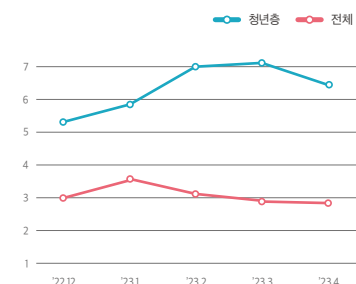
단위 : %

<고용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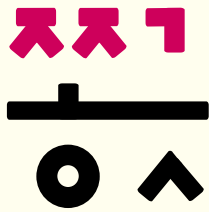
<실업률>



참고자료

1. 한국은행-주요경제지표
2. e-나라지표
3. 한국무역협회-글로벌 무역통계 서비스 K-stat
4. 관세청-수출입 무역통계
5. 통계청-통계분류표
6. 국제금융센터-경제금융지표
7. 「중소벤처기업 수출동향조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중진공)
8. IPEDF의 논의 동향과 중소기업 시사점-무역 및 공급망 중심으로(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포커스)
9. 5대 신성장 산업의 수출경쟁력 및 경제 기여 진단(한국무역협회 연구보고서)
10. 전자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현황과 협력 방안(산업연구원 월간 산업경제)
11. 주목해야 할 수출 유망국 9(코트라 심층보고서)
12. 대 중국 교역구조 변화와 시사점(현대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13. KDI경제전망 2023년 상반기(한국개발연구원)
14. 주요 투자은행의 세계경제 및 주요국 성장률 전망(국제금융센터)
15. 경상수지 현황 점검 및 평가(한국금융연구원)
16. 금융시장 동향(한국은행)
17. 국제금융시장 동향(국제금융센터)
18. 경제동향(한국개발연구원)

2023.06 VOL.21



발행일

2023년 6월(통권 제21호)

발행인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발행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규제정책연구실

기 획

규제정책연구실 황호연, 김혜은, 홍정원



이메일 구독



카카오톡 채널